

23명 아이들 열정 한 컷...스크린에 피어난 작은 학교 이야기



화순 청풍초 학생들 장편영화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도전

영화 제작 자체가 아이들 성장 기회
마을·가족·친구 소중함 되새겨
김대중 교육감·김효관 교장 출연
이달 말 촬영 종료...시사회 예정
12월 '작은학교 영화·영상제' 출품

레디, 카메라, 액션!
뜨거운 여름 햇살을 가려주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투박거리며 장난치던 아이들이 감독의 사인에 자세를 바로 한다. 눈빛을 반짝이며 한 줄씩 대사를 내뱉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예술이 할머니가 실종됐다." "역사탐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짱이지. 팡. 팡. 팡"
여느 영화 촬영 현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 이 영화의 감독과 배우, 작가, 스태프까지 모두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이다.
화순군 청풍면의 작은 학교, 청풍초등학교 전교생 23명이 영화 제작에 나섰다.
영화의 제목은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학생들이 수업과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와 마을의 이야기를 직접 영상으로 풀어내는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은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전남도교육청이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자는 7일 오전 9시 학생들의 촬영 현장을 찾았다. 학교는 물론 버스정류장과 논밭,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까지 곳곳이 무대다.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서툴지만 진지하게 연기를 이어갔다.
"감독님, 대사를 이렇게 말해도 돼요?", "뒤통수만 나와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돌면 어때요?" 폭염에 땀이 줄줄 흘러도, 아이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아이들이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을의 기억이다. 작품 속에서 아이들은 화순탄광을 탐방하는 '탐방원정대'로 등장한다. 대장인 예술이는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돌보느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친구들과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할머니의 실종을 계기로 친구들은 예술이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고, 모두가 '대장'이자 '대원'이 되어 함께 탄광을 탐방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추모공원에서 희생된 광부들을 기리는 음악회를 열어 마음을 모은다.
마을의 역사와 가족, 친구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이 성장 드라마는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영화 제작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성장 기회가 되고 있다.
주인공을 맡은 3학년 문예슬 양은 "날씨는 더워도 주인공이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마을 이야기라 더 재밌어요"라며 수줍게 웃었다. 언니인 4학년 예은 양도 함께 촬영에 참여 중이다. "지난해에는 '폐교', '슬픔바리새' 같은 단편도 찍었어요. 찍을 때는 힘들었지만 완성된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즐거웠어요. 이번엔 야외 촬영도 많고, 장편이라 더 기대돼요"라고 말했다.



화순 청풍초 학생들이 7일 화순군 청풍면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직접 제작하는 영화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촬영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이번 장편영화는 지난해 청풍초 아이들이 제작한 단편에서 시작됐다. 당시 영화를 함께 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작품에 특별 출연을 자청해, 지휘봉을 든 '음악 선생님'으로 등장한다. 김효관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도 조연으로 참여해 촬영 현장을 함께 꾸리고 있다.
3학년 담임 박선하 교사는 "촬영 역시 교육과정의 일부인데도 책상에 앉아서 하는 수업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훨씬 즐겁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다"며 "더러 아이들이 집중을 오래 못 해 통제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작은학교라는 특성을 살려 가능한 살아있는 교육이 되게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영화의 큰 틀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역할은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2018) 등을 만든 화순 출신 박기복 감독이 맡았다. 박 감독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을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화순탄광은 이 지역 역사의 상징인데다 아이들 시선으로 풀어낸 터라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은 지역 정체성을 담아내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며 "아이들의 이 같은 문화예술 경험은 교육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화순에서 K-컬처의 미래를 이끌 명배우가 자라나길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한편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는 7월 말 촬영을 마친 뒤, 학교와 화순군에서 시사회를 연다. 이후 12월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작은학교 영화·영상제'에 출품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 기후위기 극복...수소자동차 보조금 인상

'더 올 뉴 넥소' 출시 맞춰 보조금 3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광주시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조금을 인상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 수소자동차 신형 모델 '더 올 뉴 넥소(The All New NEXO)' 출시일에 맞춰 구매 보조금을 3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지급한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에 비해 50만원 인상한 것이다. 추가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세대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시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3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시범운영되는 다자녀가구 인센티브는 향후 확대를 검토한다. 신청요건도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에 거주해야 했던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 하는 등 시민들의 신청 편의도 개선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신청접수는 12월 5일까지 진행되지만 예산이 조

기소진되면 마감된다. 보조금 희망자는 광주지역 현대자동차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해 상담과 계약을 진행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구매 2년 이내 차량등록을 말소하거나(수출은 5년), 타 지역으로 이전등록될 경우에는 차량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 환수 책임은 해당 시점의 차량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판매자는 중고차 거래 시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15억원을 투입해 수소승용차 1333대, 수소버스 43대, 수소정소차 4대를 보급하는 한편 광주 전곡, 동곡, 임암, 벽진, 월출, 장동, 신촌 등 총 7곳의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18만~53만원 지급

1차 21일부터 신용·상생카드 등
문자메시지 스미싱피해예방주의

광주시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8~53만원을 지급한다. 문자메시지로 인한 스미싱 피해 예방주의보도 발령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지급되며, 1차는 7월21일부터 9월1일까지 일반 시민은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며 2차 지급은 별도로 안내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광주상생카드(선불)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비쿠폰 사용은 11월30일까지 광주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광주상생카드(선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정부와 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광주은행 역시 관련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공의대 설립 국민 83% 찬성

조사 결과 '의사 인력 확충과 양성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3.1%, '반대한다'는 응답은 12.9%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 전남, 전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역 필요의료 확보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 의사 인력 부족과 재정 적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전력시설물 감리업 양도/양수공고
전화이엔지 주식회사(대표자: 전대승)는 주식회사 장해전기(대표자: 황성진)에게 전력시설물관리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전택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제2항에 의거,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양도대상: 전력시설물관리업(전문-1863)
2. 양도예정일: 2025년 08월 08일
3. 양도자: 전화이엔지 주식회사
대표자: 전대승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덕정길 3-10
전화: 070-8800-3789
4. 양수자: 장해전기 주식회사
대표자: 황성진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4, 3층
전화: 061-744-0412
5.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1) 기한: 2025년 07월 08일(08:00~2025년 08월 07일 20:00)
2) 장소: 전남 순천시 덕정길 3-10
2025년 7월 8일
양도자 전화이엔지 주식회사 대표 전대승

고급 전원주택 매매 (평당 위치)
전남 담양 수북 쪽재골길
대지 704py, 주택 60p
카페부속건물 20p, 태양 6킬로
최고급 독일 건축재료, 경치 최고.
급 매
매 16억 9천, 은행 11억.
인수가 5억 9천
010-3646-87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